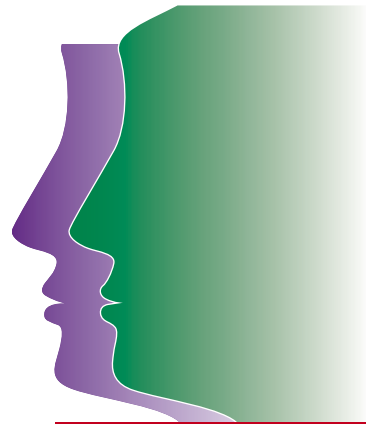


2006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Peace BAR Festival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
Global Academy for Neo-Renaissance

2006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Contents

취 지

Emblem 및 Logo

개 요

행사구성


종합일정

프로그램 제25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6 Kyung Hee Youth Forum

2006 나눔 Festival : "One Fine Day"





2006 Peace BAR Festival

In Celeb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취 지

‘배타적 보편’을 넘어 ‘포괄적 보편’으로

인간은 있었는가. 인간의 시대는 있었는가. 르네상스 이후 인간은 세계의 주인이라고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시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으로 대표되는 근대의 보편가치는 지배를 위한 ‘배타적 보편’으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갈등과 불안이 끊이지 않고 갈등과 불안의 사회적 기제가 현대인의 삶 속에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근대가 드리운 그늘이 넓고 깊기에, 다양성을 끌어안는 새로운 보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은 제25주년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2006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포괄적 보편’을 지향하며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인간 시대-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BAR-spiritually Bea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 지구촌 인류사회를 모색하는 열린 축제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인간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Emblem 및 Logo

■ Emblem



■ Slogan Logotype

*B*eautiful

*A*ffluent

*R*ewarding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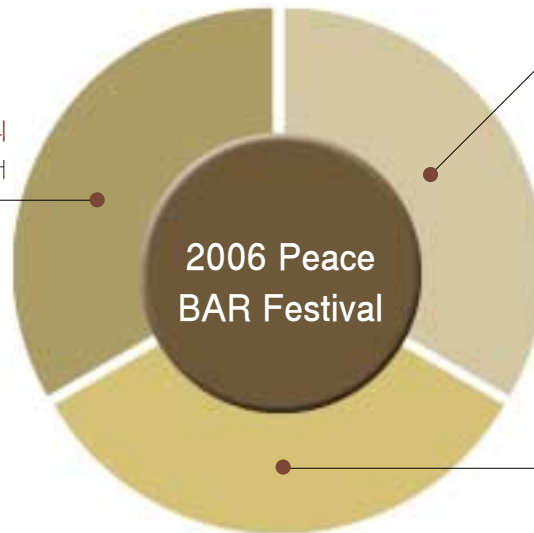
2006 Peace BAR Festival은 2006년 10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경희대학교와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며, UN 관계자, 국내외 학자, 시민단체, 대학생, 일반인 및 지역사회 시민 등이 참여한다.

행 사 명	2006 Peace BAR Festival : In Celebration of the 25 th Anniversary of the UN International Day of Peace
일 시	2006. 10. 26(목)~28일(토)
장 소	경희대학교, 롯데호텔(소공동)
참 가 대 상	UN 관계자, 국내외 학자, 시민단체, 대학생, 일반 참가자
주 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

행사구성

2006 Peace BAR Festival에서는 국제학술회의, Kyung Hee Youth Forum, 2006 나눔 페스티벌: "One Fine Day" 등이 열린다.

제25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006 나눔 Festival : "One Fine Day"
- 아름다운 365일 나눔이야기

2006 Kyung Hee Youth Forum
-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종합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10. 26(목)	10:00~17:00	Kyung Hee Youth Forum	경희대(서울캠퍼스) 청운관
10. 27(금)	10:00~11:40	학술회의 개회 및 Plenary Session I 인성의 재발견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
	13:30~15:00	Plenary Session II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후	
	15:30~17:00	Plenary Session III 다시 찾은 르네상스 - 새로운 보편의 미학	
10. 28(토)	09:30~11:00	Special Session I 탈냉전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경희대(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11:10~12:40	Special Session II 세계시민사회의 미래	
	12:00~17:30	2006 경희 아름다운 나눔 장터	경희대(서울캠퍼스) 노천극장
	14:00~15:00	"One Fine Day" 비전 선포식	경희대(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프로그램

1. 제25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2. 2006 Kyung Hee Youth Forum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3. 2006 나눔 Festival : "One Fine Day"

아름다운 365일 나눔이야기



1. 제25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주 제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취 지 '인간의 인간시대,' 르네상스 이후 끊임없이 탐구해온 화두이다. 근대인은 '자유와 평등'의 보편가치를 인간 삶의 조건이자 사회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혁명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인간실현의 길을 모색하고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함은 근대사회가 원하던 지향점이었다. 그러나 근대의 역사는 이념의 충돌과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신보수와 신진보의 갈등, 인간을 도구화하는 물질만능주의, 지구환경의 오염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며 인간과 현대문명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 사회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인간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대문명의 흐름은 멈추어야 한다. 이제 생명과 평화를 최고의 선으로 전환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근대문명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실체를 재검토하고, 자유와 평등의 새롭고 창조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제25주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는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를 주제로 마련된 담론의 장이다.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으로 대표되는 현대적 보편가치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21세기 '신인류'의 미래역사와 '평화와 공영'의 문명 창달에 필요한 새로운 보편가치의 원리와 의미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 시 2006. 10. 27(금) 10:00~17:00, 10. 28(토) 09:30~12:40

장 소 경희대학교, 롯데호텔(소공동)

주 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

후 원 중앙일보사

학술회의 세부 프로그램

개 회 사 : 조 인 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 명예원장)

2006. 10. 27(금) 10:00~10:10 /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

Plenary Session I 인성의 재발견

2006. 10. 27(금) 10:10~11:40 /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

르네상스 이후 인간은 신을 대신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주인의 위치로 격상한 인간은 냉철한 이성과 불굴의 실천을 통해 자연과 세계를 탐구하고 정복했다. 그러나 인간이 온전한 정체성과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에 내재된 다른 측면, 예컨대 자유와 아름다움을 향해 열린 마음, 타인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인정,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심 등을 겸비해야 인간은 비로소 세계의 진정한 주체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이 세션에서는 21세기 신인류를 위해 이런 가능성을 열어가는 동시에 최대화하고자 하는 네오르네상스의 인간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 회 - 김 여 수 (경희대 NGO대학원장)

발 표 - Walter Reese-Schaefer (독일, 피팅겐대 교수)

토 론 - Hwa Yol Jung (미국, 모라비언대 교수)

이 화 용 (경희대 교수)

정 연 교 (경희대 교수)



UNESCO PRIZE FOR PEACE EDUCATION
(1993)

Plenary Session II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후

2006. 10. 27(금) 13:30~15:00 /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

현대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두 축으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자유와 획일화된 평등의 양상은 오늘날 인류사회의 상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인류의 열망은 패권과 경쟁의 사회 기제를 양산해온 '배타적 보편'의 자유와 평등을 넘어, 온 인류가 화합하는 '포괄적 보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한계를 발전적으로 초극하면서 근대적 자유와 평등 이후 미래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이 세션을 준비한 의도이다.

사 회 - 김 홍 우 (서울대 교수)

발 표 - John Dunn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토 론 - Renate Bloem (스위스, UN NGO협의체 CONGO 의장)

김 용 학 (연세대 교수)

손 혁 상 (경희대 교수)

Plenary Session III 다시 찾은 르네상스 – 새로운 보편의 미학

2006. 10. 27(금) 15:30~17:00 / 롯데호텔(소공동) 크리스탈볼룸

지난 몇 세기 동안 서구문명의 근간이 되어온 인간주의의 가치관은 인간 외의 모든 것을 인간의 도구나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21세기는 인간과 인간의 생산물(human creatures),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며 세계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션은 21세기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신인류의 창조적 보편, 평화와 공영의 미래문명을 창달할 새로운 인간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 사 회 – Hwa Yol Jung (미국, 모라비언대 교수)
발 표 – Longxi Zhang (중국, 홍콩 시립대 교수)
토 론 – Walter Reese-Schaefer (독일, 피팅겐대 교수)
이 동 수 (경희대 교수)
임 정 근 (경희사이버대 교수)



Special Session I (Round-table) 탈냉전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6. 10. 28(토) 09:30~11:00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20세기의 발전과 비극의 중심에는 국가가 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은 인류가 이전에 향유하지 못한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열었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국가이념에 의해 분열된 세계질서는 20세기 내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최근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기존의 자유와 평등관에 입각한 세계질서에 대한 성찰과 극복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 세션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변화의 조짐 속에서 이전 시대의 기율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질서의 수립 가능성을 논의한다.

사 회 - G. 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발 제 - Takashi Inoguchi (일본, 주오대 교수 / 전 동경UN대 총장)

토 론 - John Dunn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Joan Kirby (미국, UN NGO / DPI 집행위원회 위원장)

Walter Reese-Schaefer (독일, 피팅겐대 교수)

Longxi Zhang (중국, 홍콩 시립대 교수)

염 재 호 (고려대 교수)



Special Session II (Round-table) 세계시민사회의 미래

2006. 10. 28(토) 11:10~12:40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20세기 후반부터 시민사회의 대두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가와 권력 중심의 현대정치에 지친 시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발적인 정치행위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지며, multi-vision holder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대안적 시민정신을 창달하여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시민사회의 미래 오딧세이를 전망하고, 그 한 예로서 세계시민사회포럼(World Civic Forum)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사 회 - **염 재 호** (고려대 교수)

발 제 - **Scott Lash** (영국, 런던대 교수) / **김 용 학** (연세대 교수)

토 론 - **Renate Bloem** (스위스, UN NGO협약체 CONGO 의장)

G. 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Takashi Inoguchi (일본, 주오대 교수 / 전 동경UN대 총장)

Joan Kirby (미국, UN NGO / DPI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 홍 우 (서울대 교수)

김 의 영 (경희대 교수)



주 제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취 지 2006 Kyung Hee Youth Forum은 지구화 시대를 이끌어갈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대학생들의 열린 광장이다. 지구 공동체 시대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은 근대의 유산을 뛰어넘어 글로벌 마인드를 내면화해야 한다. 이들이 바로 미래 사회의 새로운 보편 가치를 실현할 리더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제 하에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 지구화 시대 UN과 NGO의 새로운 역할, 동북아시아의 거버넌스에 대한 상상력을 펼친다. 아울러 강대국이나 초국적 기업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가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일 시 2006. 10. 26(목) 10:00~17:00

장 소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청운관

주 관 Kyung Hee Youth Forum 준비위원회



개회식

일 시 - 2006. 10. 26(목) 10:00~11:00

장 소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청운관

개 회 사 - 윤 영 석 (경희대 영어학부, 학생대표)

축 사 - 조 인 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문명원 명예원장)

특 강 - Joan Kirby (미국, UN NGO / DPI 집행위원회 위원장)

Plenary Session I 지구화 시대, UN의 역할

2006. 10. 26(목) 11:10~12:40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청운관

탈냉전 이후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의 향방과 내용을 살펴보고, 평화와 공영의 지구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UN의 역할을 모색해본다.

사 회 - 최 용 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발 제 - 이 은 경 (경희대 철학과)

토 론 - 국내·외 대학생

Plenary Session II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의 역할

2006. 10. 26(목) 13:30~15:00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청운관

새로운 세계질서를 앞당길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와 기능을 탐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NG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의한다.

사 회 - 김 현 아 (경희대 국제학부)
발 제 - 강 현 진 (경희대 국제지역학부)
토 론 - 국내·외 대학생

Special Session 동북아시아의 거버넌스

2006. 10. 26(목) 15:30~17:00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청운관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시아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을 가능하며 아울러 평화와 공영의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사 회 - 권 아 람 (경희대 국제학부)
발 제 - 이 보 라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토 론 - 국내·외 대학생



- 취 지** 새로운 르네상스적 인간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할 이 축제는 나눔과 기부 문화의 일상화를 통해 지역과 지구촌이 만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One Fine Day"는 누구나 1년 중 하루, 자신이 기념할 만한 멋진 날을 My Fine Day로 선정해, 당일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눔의 계획을 Website를 통해 선언하고 이를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알리는 나눔과 봉사의 새로운 실천운동이다. 이 축제를 통해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어 21세기 시민 사회, 지구촌 공동체 사회의 당위성을 인식하는 학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 일 시** 2006. 10. 28(토) 12:00~17:30
- 장 소**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노천극장
- 주 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 내 용** 비전 선포식 / 아름다운 나눔 장터 / Kyung Hee Action For Community Partnership

One Fine Day란?

- 개인 또는 단체가 기념일을 선정하고 그 날 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선택해서 당일이면 자원봉사와 기부 등을 실천한다.
- 개인 및 단체의 One Fine Day 선정이유 및 활동내용 등을 Website를 통해 선언하고 활동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공개한다.
(보고서, 사진, 동영상, 삽화, 기도문 등)
- 경희대학교와 아름다운재단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아가 UN과 함께 인류적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적 차원의 캠페인으로 발전시킨다.
- 365일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지구, 매일 진행되는 자원봉사와 기부 등의 내용을 묶어 1년 단위의 사업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이 함께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One Fine Day 비전 선포식

One Fine Day 100인 이꿈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One Fine Day의 취지와 의미를 짚어 보고 향후 계획과 비전을 공유한다.

일 시 - 2006. 10. 28(토) 14:00~15:00

장 소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주요행사 - 개회식 / One Fine Day Website 시연 / 축하공연

Program 3. 2006 나눔 Festival : "One Fine Day"

아름다운 나눔 장터

아름다운가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경희학원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나눔과 기부의 축제 한마당이다. 행사 수익금은 전액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일 시 - 2006. 10. 28(토) 12:00~17:30

장 소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주요 행사 - 아름다운 일일 가게 / 진품명품 경매 / 릴레이공연

Kyung Hee Action For Community Partnership

경희학원의 학생, 교수 및 직원 등 구성원의 전공 및 관심분야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수립한다.

기간 - 2006. 10 ~ 연중

장소 - 동대문구 일대

분야 - 교육·연구, 문화·환경, 복지·의료, 사이버

주관 -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문명원

장소 -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노천극장

협력기관 - 동대문구청, 동대문신문사,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 동대문 문화원 등

주요프로그램 - 민주시민공동체 Special Lecture Series - 나눔을 위한 Music & Art School - Kyung Hee English Camp
 - Kyung Hee Park Music Concert - 주민자치전문가교육 - 청소년을 위한 환경 School
 - '역사의 숨결을 찾아 : 아름다운 나들이' - Kyung Hee 해비타트

